

탐험부터 SNS · 역사까지... 폭넓게 확장된 여행 예능



여행 예능이 폭넓게 확장되고 있다. KBS2 '1박 2일'을 시작으로 tvN '꽃보다 시리즈' 등이 많은 인기를 얻으며 다양한 여행 예능 프로그램

이 이어졌다. 시청자들은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일상 속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스타들의 일상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스타들 역시 일과 여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예능 프로그램보다 출연을 선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높아지는 인기와 함께 비슷한 스타일의 여행 프로그램이 계

'거기가 어딘데 · 이타카로 가는 길' 등 폭 넓은 소재 · 변형 통해 확장 모습 보여

속되며 식상하다는 평이 많아졌다. 이에 최근 등장한 여행 예능 프로그램은 보다 폭 넓은 소재와 변형을 통해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여행 예능의 바이블로 꼽히는 '1박 2일' 유희조PD의 복귀작이자 배우 지진희, 차태현 등의 조합으로 주목 받았던 KBS2 '거기가 어딘데??'가 있다. '거기가 어딘데??'는 연예인 탐험대가 극한의 탐험지로 떠나 펼쳐지는 생존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현재 오만 이라비아 사막 편이 방송되고 있다. 기존 여행 예능 프로그램과 달리 명소나 힐링 장소 보다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 뜻밖의 상황과 만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극한 상황과 이를 이겨내는 출연진의 모습이 색다른 재미를 전하고 있다.

지난 15일 첫 방송된 tvN '이타카로 가는 길'은 음악과 SNS를 여행

과 결합시켰다. SNS에 업로드한 노래 영상의 조회수로 얻은 경비로 터키에서 그리그 이타카섬까지 가는 여정을 담는다. 지난 4월 터키로 떠난 윤도현과 국가스텐 하현우는 다양한 라이브 영상을 SNS에 게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타카로 가는 길'은 JTBC '비긴어게인'과 유사한 포맷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SNS와 이를 통한 경미 획득을 통해 차별화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MBC '신을 넘는 녀석들'은 역사라는 테마 안에서 진행되는 여행 예능이다. '스타 역사감사' 설민석의 출연한 만큼 국경선을 넘으며, 국가간의 역사와 문화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실제 여행 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두터운 마니아 시청자 층을 이뤄 당초 16부와 시즌제로 시작됐지만 4회 연장까지 결정했다.

지난 15일 첫 전파를 탄 TV조선 '뽕철이 게스트하우스 투어 어디까지 가봤니' 역시 현지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명소를 찾고 출연자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접 머물며 여행 객들과 교류하는 독특한 포맷이다. '뽕철이' 항공권, 게스트하우스 등 실속 있는 여행 아이템을 통해 기존 여행 프로그램보다 리얼에 집중하고 참신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차별화를 갖고 있다.

올해 사회 전반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를 가장 반영한 여행 예능 프로그램은 탐험부터 음악, 역사, 실속 정보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며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여행 프로그램 관계자는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통한 힐링과 대리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가운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행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존과 비슷한 내용 보다는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여행 예능 프로그램이 갖는 정보성과 재미,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고 전했다.

“블랙핑크→트와이스” 여름만큼 뜨거운 걸그룹 전성시대

그야말로 걸그룹 전성시대다. 걸그룹들은 올 여름만큼 뜨거운 차트경쟁을 펼치고 있다. 나란히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른 이들의 노래는 여름을 겨냥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리스너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가장 먼저 컴백한 음원감자 블랙핑크, 이어서 새로운 콘셉트로 돌아온 에이핑크, 여기에 탄탄한 팬덤을 자랑하고 있는 트와이스와 밀고 들리는 마미무와 '갓자친구' 여자친구까지 합세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 블랙핑크 '뚜두뚜두'

지난 6월 15일, 무려 1년 여만에 첫 번째 미니앨범 'SQUARE UP(스퀘어 업)'을 들고 컴백한 블랙핑크 타이틀곡 '뚜두뚜두'는 YG 특유의 합한 멜로디는 물론 중독성 있는 가

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대기록도 함께 썼다. 약 25일 간 음원차트 1위를 하며 차트 장기 집권을 이어갔다. 또한 역대 K팝그룹 중 최단시간에 뮤직비디오 2억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빌보드 200' 40위 '핫100'에서 55위를 기록하며 K팝 걸그룹 사상 최고 기록을 써내려 갔다. 이 기세를 몰아 블랙핑크는 후속곡 '포에버 영'으로 7월 말까지 활동한다.

★ 에이핑크 '1도 없어'

지난 2일 일곱 번째 미니앨범 'ONE & SIX(원 앤 시스)'의 타이틀곡 '1도 없어'로 컴백한 에이핑크는 데뷔 7년차의 노련함을 자랑했다. 그동안 선보인 밝고 청순한 콘셉트를 버리고 올블랙 스타일링과 강렬한 느낌으로 돌아온 에이핑크의 변

화는 성공적이었다. 타이틀곡 '1도 없어'는 마이너 팝 댄스 장르의 곡으로 청순하고 발랄한 기존의 곡들과 달리 사랑이 끝난 여자의 아픔을 노래했다. 성숙한 모습의 에이핑크는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으로 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멤버 전원 제계약을 마친 에이핑크는 새로운 변화로 음원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물론, 각종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7년차 징크스'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 트와이스 'Dance the Night Away'

에이핑크에 이어 9일 컴백한 트와이스는 새 앨범 '서머 나잇'(Summer Night)을 발매하고 타이틀곡 '댄스 더 나잇 어웨이'(Dance the



Night Away)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 여름밤을 밝히는 '파티걸'로 분한 이들은 여름의 청량함을 제대로 보여 주는 중이다.

뮤직비디오부터 무대 의상까지 여름을 떠올리게 만드는 트와이스는 걸그룹 흥행을 이어 받았다. '우아하게 부러' 지난 4월 '왓 이즈 러브?'까지 베가 히트를 친 걸그룹답게 컴백 직후 음원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21일 MBC '음악중심'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음악방송 4관왕을 달성했다. 이처럼 트와이스는 차트 상위권으로 대중성을, 높은 앨범판매량으로 탄탄한 팬덤까지 형성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으로 자리잡고 있다.

★ 마미무 '너나해'

'2018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마미무는 지난 3월 '별이 빛나는 밤' 이후 4개월 만에 옐로우 콘셉트에서 레드 콘셉트로 돌아왔다. 지난 16일 새 앨범 'RED MOON'의 타이틀곡 '너나해'로 컴백한 마

미무는 청량함 대신 리턴레게의 섹시함을 선택했다. 강렬하고 정열적인 타이틀곡 '너나해'는 레게톤의 장르의 곡으로 무더운 여름을 한층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열치열의 느낌을 살린 마미무는 '넌 언제나 제멋대로 해'라는 가사처럼 이기적인 연인에게 일침을 가하며 걸크러쉬 매력을 다시 한 번 발산했다. 이들은 컴백하자마자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역시 '밀고 들는 마미무'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자랑했으며, 스스로 자신감을 보인 '무대' 역시 완성도 있게 꾸려나갔다.

★ 여자친구 '여름여름해'

19일 서머 미니앨범 '써니 서머(Sunny Summer)'의 타이틀곡 '여름여름해'로 돌아온 여자친구는 강렬한 레드계열의 콘셉트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컴백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멤버들의 스타일링 변신. 처피팬과 트렌디한 컬러로 변한 이들의 헤어스타일은 여름 분위기를 한층 살렸다. 여자친구 특유의 발랄함이 담긴 '여름여름해'는 멤버들의 이름이 담긴 귀여운 가사가 귀를 사로잡는다. 이어 '여름여름해 Sunny summer'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는 여름의 느낌을 한껏 살렸다.

매번 중독성 넘치는 노래를 선사해 '갓자친구'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는 이번에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여름을 맞아 연이어 컴백을 하고 있는 걸그룹의 중독성 있는 노래는 썸뽕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준다. 여기에 음원차트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이들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응원으로 훈훈함까지 더하고 있다.

'마녀' 300만 돌파, 무더위 속 흔들림 없는 흥행 저력



'마녀'가 22일 121,904명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3,000,334명

을 기록,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 '마녀'는 시설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은 의문의 사고, 그날 밤 홀로 탈출한 후 모든 기억을 잃고 살아온 고등학생 '자윤' 앞에 의문의 인물이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액션이다. 지금껏 본격 없는 강렬한 액션 볼거리, 신에 감다미와 조민수 박희순 최우식의 폭발적 연기와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입소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마녀'가 개봉 28일째인 22일 121,904명 관객

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3,000,334명을 기록,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국내외 신작들의 거센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며 관객들의 꾸준한 지지를 얻고 있는 '마녀'가 개봉 2주차 주말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식을 줄 모르는 흥행 열기를 입증하고 있다. 흔들림 없는 흥행 저력으로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마녀'는 새로운 미스터리 액션의 탄생이라

는 평을 받으며 기존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던 여성 원톱 액션 영화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숙련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끝없는 입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마녀'의 흥행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모든 것이 리셋된 '자윤'과 그녀 앞에 의문의 인물이 나타나며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 감각적인 스타일의 폭발적 액션으로 신선한 재미와 쾌감을 선사하며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사로잡은 '마녀'는 꾸준한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의 순세 2018년 7월 24일 화요일 (음력 6월 12일)



▶**경조** 늦은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풀잎은 더욱 시들어지지만 감은 더 맛있는 홍시로 변한다.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은 홍시와 같이 분발하라. 2, 8, 11월생 친구를 둔 사람은 우정이 한층 더 두터워진다.



▶**세외** 오후에 할 일을 오전 중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북쪽에서 중요한 일로 귀인이 온다. 주머니 사정을 개치지 말라. 미래에 득이 올 일이다. 4, 6, 10월생 투자 기회가 주어지면 행하는 것이 좋다. 빨간색이 길하다.



▶**운행**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맛이 한층 더 좋지만, 급히 먹으면 오히려 화를 초래한다. 5, 8, 12월생 우울증과 자만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금상첨화다. 가정의 평화도 내게 달렸으니 슬기와 기쁨을 살리라. 서쪽이 길하다.



▶**진행** 몸이 허탈해 있다고 목욕탕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인수하되 담보, 문서 관계를 신중히 처리하라. 시비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정에 끌리지 말라. 개, 용, 소띠와 만남도 사업상 좋은 관계가 유지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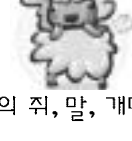
▶**음미** 차를 공복에 마셔야 그 향기와 맛을 한층 더 음미할 수 있는 법이다. 툇, 오, 나 성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전념하면 마음의 평화와 차 한 잔의 여유도 누릴 수 있다. 1, 2, 7월생은 동쪽의 이성과 좋은 인연이 될 듯하다.



▶**진행**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수확한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니 좋은 결실하는구나. 1, 2, 5월생은 가정에 관심을 가지라. 후수가 나면 국이 없는 맨밥이 됨을 잊지 말라. 자, 나, 음 성씨 신병을 조심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행운** 내 삶은 자연의 리듬처럼 고르게 풀린다. 툇, 나, 오 성씨 기운이면 하락하던 사업도, 안정적이지 못하던 애정도 모두 평온을 찾는다. 5, 7, 9월생 서둘러도, 좌절하지도 말라. 동남쪽이 길하다. 미혼자는 자신감을 가지라.



▶**행운** 호랑이에게 물리는 것이 힘이 없어서만은 아니다. 어깨를 펴고 용기와 지혜로 대처하라. 좌절은 금물이다. 1979년생 나, 나, 음 성씨는 사업 운이 있다. 3, 10, 12월생이나 북쪽의 쥐, 말, 개띠인 자가 신용도 있고 믿음직한 인물이니 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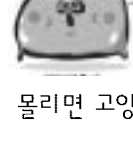
▶**운행** 나 자신이나 자식이 우려된다. 계획성 있게 알맞은 약을 먹으라. 2, 3, 6월생 서북쪽의 돼지, 범, 닭띠가 귀인이다. 툇, 나, 음 성씨 매매 건은 반상과 쥐새 계통 의복을 차려입고 하면 내 뜻대로 이뤄진다. 과음을 삼가라.



▶**경조** 책임 회피는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 문제 해결은 내 속재다. 상대를 설득하려면 지혜와 의지력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언행이 있어야 한다. 2, 9, 10월생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경조** 제아무리 좋은 연장을 가졌다고 해도 쓰지 않으면 녹이 슨다. 마음의 문을 열고 베푸는 도를 실천하라. 당신에게 득이 있다. 1982년생 나, 자, 음 성씨 나태함과 게으름은 금물이다. 자기 개발에 힘쓰라. 6, 7, 8월생은 노란색, 황토색이 흉하니 피하라.



▶**행운** 인정 때문에 망하고, 성급한 언행 탓에 부부 갈등이 심했는데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3, 7, 12월생은 생각 없이 처신하면 망신 수가 서남쪽에서 뻗어나온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